

# ‘與 vs 野’ ‘野 vs 安’... 물고 물리는 주도권 싸움

### 6·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 각 당 전략과 전망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동시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데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9대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일전이라고 예상된다.

여당의 ‘힘있는 지역 일꾼론’에 맞서 야당은 ‘정권 중간평가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광주·전남지역 각 선거구에 그동안 후보자를 내기도 힘들었던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 모든 선거구 후보 내 호남 공략 민주당, ‘안풍 차단’ 사활 걸고 전력투구 진보, 이미지 쇄신·인지도 높이기 전략

드러난 ‘호남 민심’ 변화에 따라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인물을 후보로 낼 경우 지역민심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39.7%의 지지율을 얻는 등 선전할 덕분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자 발굴을 위한 새 인물 영입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 당내 정치이카데미를 개최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대비 핵심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장 조준성 사

무처장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후보의 기준은 도덕성과 전문성”이라며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 문호를 개방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내년 6·4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4일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고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과거 지방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기획단을 띄웠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 체제가 조기에 가동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안풍(安風)이 거센 광주·전남지역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안풍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낭패를

볼 경우 야권 주도권은 물론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위기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앞서 치러지는 10월 재·보선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향후 동력을 잃고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천개혁안 마련과 공천제도를 조기에 결정해 특정 계파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출마 대상자의 준비기간을 늘려 내실을 기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인재영입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역량 있는 ‘정치예비군’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새피 수혈’의 성격과 안 의원 측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가릴 시금석이라는 인식에서다.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진보정당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기대를 걸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최소한 자치단체장 1석 이상의 당선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30일 광주에서 정책 당대회 열고 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서 당원 5000여명이 참석해 당발전 전략, 정치 노선 토론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정책 토론 등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30일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문화제를 열어 그동안 추락했던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진보정의당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인지도와 함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대부분의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려 후보군을 모색하는 등 인재 영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 이후 새롭게 출범한 뒤 맞은 첫 지방선거인 만큼 광주·전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상 시름은 담배연기로 사라지는게 아니다



(31) 담배 파이프

지난 주에는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전후로 금연을 호소하는 퍼포먼스와 플래쉬 몹 등 다양한 행사 가 여러 나라에서 펼쳐졌다. 우연히도 며칠 전 한국의 대표적 DJ였던 한 방송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흡연의 위험성이 더욱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담배는 끊기 힘든 중독성이 있어서인지 대개의 금연광고들은 흡사 공포스럽거나 잔혹한 이미지를 담아 죽음을 경고한다. 해마다 6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담뱃값 인상 논의도 꾸준하지만 흡연자는 그리 줄지 않는 것 같다. 세상살이가 고단할수록 한 모금 담배 연기에라도 시름을 날려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담배 이미지 작품으로 미술사에서 의미있게 거론되는 벨기에 출신의 르네 마그리트(1898~1967). 마그리트의 대표작인 ‘이미지의 배반’에는 흔한 파이프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불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여 있다. 누가 보아도 파이프를 재현한 그림이 맞지만 그것은 파

르네 마그리트 ‘이미지의 배반’

이프 모양을 한 그림이고 단지 걸 모습에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파이프 자체일 수는 없다는 역설이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러한 마그리트 그림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한 권의 책에 담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펴냈다. 푸코는 마그리트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인 세상에 반론을 제기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믿어 왔던 평범한 상식이나 철학을 일련의 작품으로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 배반과 같은 일대 ‘변혁’을 가져다주었다고 분석한다. 마그리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의 그림이다’라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시름까지 날려 보내는 듯 착각하는 예연가들에게 마그리트의 그림 한 점 감상을 권한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렇게 뿜어내는 연기는 ‘사라지는 시름이 아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전두환추징법 ‘是非是非’... 국회 저지선 넘나

민주당 “부정한 돈 회수·정의 위해 꼭 통과돼야” 새누리 “소급적용 피고인에 불이익... 위험소지”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6월 임시국회 전문을 드려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새누리당은 법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일부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전두환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특히 부정한 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을 다 회수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많은 추징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조세회피

처, 조세피난처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좀 더 특별법을 만들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중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적 정서를 볼 때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누리당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형벌을 변경해 소급적용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정이 된다



“5·18 평해, 보훈처장 사퇴하라”

5월 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저지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5월 광주 북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식 공식 제창을 거부해 국문을 분열시키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방치로 일관한 데 대해 박 보훈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하더라도 전두환씨 본인에 대해 적용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지명 대변인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해

현행 형법과 배치돼 기본법 개념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전두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납부를 위한 법안인데 법체계 상

5월 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저지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5월 광주 북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식 공식 제창을 거부해 국문을 분열시키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방치로 일관한 데 대해 박 보훈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현행 형법과 배치돼 기본법 개념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전두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날 더운데 그거라도 시원하게 줘...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5월 25일 발매

키농샤

메이드인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

###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 메이드인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키농샤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

###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스페셜 인터뷰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 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화동행, 편편 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아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혹”